

시론

정권교체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낮은 곳부터 새시대를 연다

정연옥

<전국연합 정책부장>

지난 12월 19일 새벽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우리나라 반세기 헌정사에서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기호 2번 김대중 후보가 대권 도전 '사수' 만에 드디어 권좌에 오르게 된 것이다. '동군'과 '서군' 간 격렬한 정치적 분리를 확인하면서 말이다. 이에 36년간의 영남지역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혹자는 '영호남의 화합'을 이루게 되었다고 자평하지만 지역화합은 수학공식처럼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현 김영삼대통령은 14대 대선 전 3당 합당을 통해 여당 후보로 대통령 권좌에 도전하여 성공, 집권초 90%를 넘나드는 역사상 최고의 국민적 지지를 얻기도 했지만 지금 은...

김대중당선자는 대선 전 자민련과 연합을 실현, 지역연합에 기초한 집권전략에 성공하여 조만간 '동국'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역대 대통령 2인을 당선 며칠만에 다시 거리를 확보하게 만들어 주고, 조속한 정리해고제 실시의 불가피함을 피력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을 민주와 진보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 2백20여개나 되는 선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임하였지만 30만 표에

혹자는 '영호남의 화합'을 이루게 되었다고 자평하지만 지역화합은 수학공식처럼 그리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5년전으로 돌아가보자

92년 12월 19일 아침 한겨레신문 박재동화백의 만평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고 뻗은 눈으로 옷깃을 여미고 있는 한쪽의 만평은 당시 야당 후보인 김대중후보와 정책연합을 실현하여 범민주단일후보로 추대,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해 대통령선거에 임했던 모든 민주적 시민, 노동자, 학생들의 정치, 심리적 상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물론 일부 좌파정치진영에서는 백기완씨를 민중대통령으로 추대, 14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23만표를 얻고 결국 평가도 변변하게 진행도 못한 채로 참가한 진영 및 단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12월 18일 국민승리 21 권영길 후보에게 던진 30만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리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네 번째 후보의 공판에 자신의 표를 행사하였을까? 지역별 투

표 행태로 미루어 보아 30만표의 대부분은 노동자임에 틀림없다. 울산(6.1%), 거제(3.9%), 창원(3.8%), 인천(1.6%)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인 점이다. 특히 주목할 곳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의 경우 13.8%라는 최대 득표율을 나타냈는데 약 2천여명의 정치실천단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정문유세를 하였으며 대선을 단순히 대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후 생거날 고용문제와 노동악법저지 투쟁을 위한 자체 훈련과정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30만표라는 1%가 겨우 넘는 득표율에는 자칫만 소중하고 눈물겨운 노동자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작은 불씨를 쉬 꺼뜨려서는 안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언제나 처음처럼

중세봉건시대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해당지역 영주들이 일정정도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지방분권 정치의 시대였다. 그러던 것이 시민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부르조아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정치권력의 형태는 중앙집권적이고 경제생산구조 역시 전형적인 산업화초기과정 체제인 소품

종 대량생산이 용이한 중앙집중관 리체제로 변화하게 된다.

소련과 동구의 현실사회주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내적발전으로 지금의 산업형태는 산업화 초기단계인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는 먼저, 날로 격화되는 시장경쟁은 기업의 비생산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자층을 제거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평화, 분권화 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체제의 자발적 인 참여와 협력을 얻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력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 및 지역권력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이 중앙권력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집중공격이 주였다면 이제는 지역권력획득을 위한 일상적 노력과 권력획득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기와 계기를 살린 중앙권력에 대한 유격전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집중 모색해야 될 때가 도래한 것이다.

단단한 예를 들자면 노동조합원은 현장의 노동자이면서 가족의 일원이자 동시에 지역주민으로서 이

해와 요구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가족과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록 노동조합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로부터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지역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새롭게 모두가 주입되는 진정한 정치권력을 창조하자는 것이다.

역사는 이타(利他)적 삶을 살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서만 파괴되고 창조된다

반세기 헌정사에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가지는 한국 정치사에서의 의의는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역사에 화려한 '인동초(忍冬草)'처럼 기록될 것이다.

50년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대의명분 상실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가는 모든 시민, 노동자,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일꾼'을 청와대에 앉혀놓고 앞으로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까지와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현상적으로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이 역사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해당 시대,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기(利己)보다는 이타(利他)를 자신의 삶중 51% 이상을 실현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기록될 것이다.

사 설

불황 중 대학이 살아남는 길

1998년 무인년의 해가 밝았다.

지난 1997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15대 대통령 선거로 압축되는 1997년은 그 결과만큼이나 영향이 지대한 것 같다. '국가부도사태'라는 말이 알려주듯 한 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난국의 와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대학이라 해서 IMF시대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국공립 대학도 재정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겠지만 재단 수익의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사립대학의 심각성은 그 정도가 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각 대학별로 휴학생이 심한 경우에는 50%대에 육박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바로 재단 수입의 상당부분이 감소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릴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학에 대한 기업들의 각종 기부금도 최근의 불경기로 인해 대폭 삭감될 것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사항대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대폭 축소된다면 대학으로 할당될 교육재정 면에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해보인다. 결국 대학 스스로 이 난국을 풀어가야 하는데 그 어려움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그 경조는 여러군데서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D대학은 캠퍼스 이전문제로 사채업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려쓰다가 실패하여 이미 몇 개월 간 교수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충청권의 K대학은 대학 자체의 문패를 내릴 위기에 서 있다고 하고 연세대학의 세브란스 병원은 이미 환율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3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대학의 현실도 암울해보이는게 마땅치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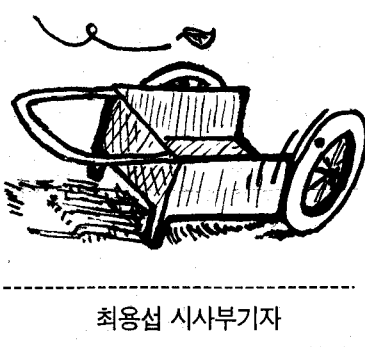
우리대학의 현실도 한국의 전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긴급 합동실무부서장회의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신입생 입학금을 동결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교직원들의 임금 동결, 그리고 각 행정부서의 예산 동결 내지는 삭감 부분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한다. 최근의 유행어처럼 고통분담이 이제 대학에까지 밀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내년도로 다가는 개교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재원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시장에서 분명 뼈를 깎는 고통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서 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날렵한 몸매를 유지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1, 2년 간의 고통은 감수할 수 밖에 없어보인다. IMF시대를 돌파하는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새해 첫날이다.

세·시·봉

뒤로 도는 수레바퀴, 전노사면

수레바퀴에 하나의 점을 찍는다. 한바퀴 돌러보면 그 점이 땅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줄어든다. 이진과 똑같다. 그러나, 뒤로 한바퀴를 돌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역사를 수레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뒷면이고 되풀이 되기도 하고, 혹은 험난한 길을 거처며 멀쩡거리기도 했다. 분명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숙해갈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석방된 두사람을 보면, '수레바퀴가 뒤로 도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최용섭 시사부기자

가 보복정치가 아닌 용서를 택했다는 것은 한단계 높은 정치의식으로 전 국민이 하나로 화합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석방 이후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바람들을 무너뜨린다. 자신들이 역사적 범죄자라는 점에 대한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왜 이제서야 나오게 되었나' 하는 듯한 인상마저 남긴다. 무분별한 권력남용과 사기행각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를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전씨의 경우, 더이상 숨겨놓는 비자금도 없으며 법원의 추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의 추정금 판결시효가 끝나는 2000년 4월 이후엔 숨긴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한다.

면죄부는 아직 발부되지 않았다. 비록 특별사면 조치로 수감생활은 그만두게 되었으나 국민은 아직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이 뒤로 돌린 역사의 수레바퀴와 거기에 깔린 국민들의 분노는 앞으로의 그들의 행적을 추시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양심수들도 석방되지 않는 한 국민대화합의 길은 아직 멀다.

PC 통신원

국회세비 인상, 반대여론 지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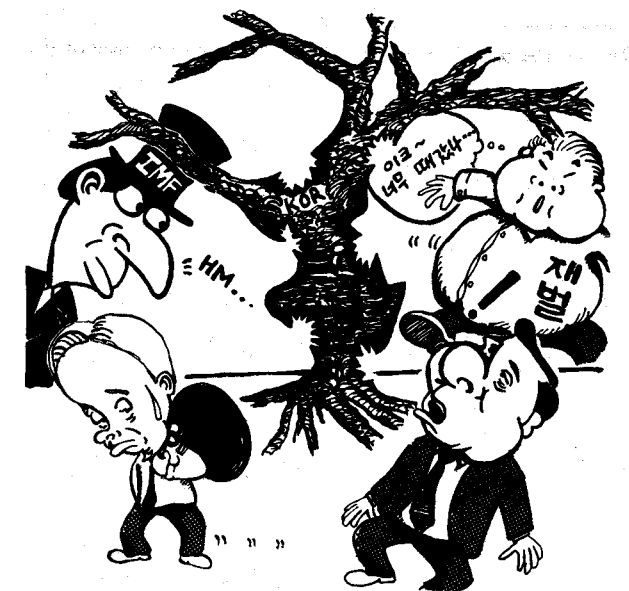
경제 주권을 상실한 후 크고 작은 기업들이 쓰러져 가고 있고 그로 인해 실업률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초중학생부터 국민 모두가 '허리띠 졸라 매기'에 여념이 없고 정부와 기업들도 기구를 축소하고 임금을 동결내지는 삭감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이 이런 운동에 불참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안을 개정해 세비를 뿌려 30.6%나 인상시킨 1백 80만원에서 2백 35만원으로 늘리고 한 국회의원당 4급 보좌관 1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것이다. 세비의 경우 차관금 대우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서 대폭 오른 것이며 보좌관은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의원 복수상임제도를 앞두고 증원된 것으로써 뒤따르는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안은 계획대로라면 올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어 잠정적으로 미뤄진 상태이다.

PC 통신에서는 국회의원들은 매일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월급이나 품위 유지비 인상시에는 합의를 적적한다면서 그들이 함부로 올리고 있는 임법률 동비도 결국 국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ID:100-harim) 또다른 의견으로는 국회에서 있어야 할 시간에 골프장, 사우나실 등에서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월급을 주지 않는 무노동·무임금제도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ID:Posse38) 한편, 국회의원의 세비를 현재의 80%로 삭감하자는 요구도 나왔으며 그 나머지 20%도 과연 '발'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 주장도 있다.(ID:support)

국제 통화 기금에서 우리의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밀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할 이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다시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각성해서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세희 기자>

경희만평



"죽어가는 나무, 다시 살아나길..."

1998년도 호스트 패밀리 모집 공고

본교 경희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트 패밀리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호스트 패밀리 제도란?

단순한 민박의 개념을 확장하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일반 한국 가정의 결연을 주선하는 제도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의 미풍양속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참가가정에게는 국제적 감각과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호스트 패밀리 방식

- 가. 호스트 패밀리 가정 초청 및 방문: 한국 가정의 식사나 여행, 명절에 초청
- 나. 행사민박: 본교 주관 행사시 단기간 함께 투어나 행사일정에 참가

3. 대상: 경희학원 중학생, 교원, 교직원, 동문 및 그 가정

4. 경비 지원

- 가. 호스트 패밀리 가정 초청 및 방문: 자원봉사(무박)
- 나. 행사민박: 1일 1명당 3만원 지원(의전 및 투어 포함) 체류민박: 1일 1명당 20만원 지원(숙박자 본인 부담)

5. 특징

- 1)본교 대학생이 호스트 패밀리를 등록·실시한 경우 이를 소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봉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학생에게 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함

6. 호스트패밀리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본관 2층 국제교류센터
- 나. 접수기간: 98. 2. 9(월)~98. 2.21(토)
- 다. 연락처: 국제교류센터

전화 961-0030~3, 팩스 962-4343 담당: 김용화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며 전화하시면 신청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국·제·교·류·센·터

98년 전기 신입생 모집

아태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정부지원 국제대학원)

모 집 학 과

(각 학과별 00명)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경영학과, 지역학과(중남미)

장학제도 및 특전

가. 다양한 장학제도

- 1. 입학자 진학예고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2. 해외연수 및 인턴십 참가시 비용보조
- 3. 해외 자매교 파견시의 학비감면 등

나. 특전

- 1. 국제기구 및 기업의 지사에 인턴 파견기회 부여
- 2. 졸업후 유러피안대학에서 한 학기 수학 후 유럽경영 MBA 취득 기회 부여
- 3. 재학 중 해외자매대학에 교환학생 파견기회 부여

전 형 방 법

- 1. 1차 서류전형
- 2. 2차면접: 원서 접수 후 면접일시를 개별 통지하며 국·영어로 면접

제 출 서 류

- 1. 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2. 졸업증명서(예정증명서) 1통
- 3. 대학(교)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 1통
- 4. 사진(명함판 사진) 4매
- 5. 자기소개서 및 학업·진로계획서(A4 용지 2매 내외, 국문 혹은 영문)
- 6. 토벌, 토익 성적원본 및 사본 각 1부(해당자)

아태국제대학원은?

오늘날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실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국제문제가 점차 복합적 양상을 띄게 됨에 따라 학제적인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교육 연구 프로그램들이 이와같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경희대학교는 정부의 국제전문인력 양성특성화 사업의 지원대상교로 선정됨으로써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아태국제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본 대학원은 전문직과 소양교육, 국제간사의 배양,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 지도자적 자질의 함양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할 비전 있는 국제실무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본 대학원의 특징

- 1. 실무적 교과과정
 - ① 다양한 현장실습과 실무중심의 특강개최
 - ② Team Teaching제 실시를 통한 문제해결학습
 - ③ 국제회의 및 국제비즈니스 교육
 - ④ 구인교육을 통한 학생지도
 - ⑤ 문제해결 중심의 수업방식
- 2. 철저한 국제화 교육
 - ①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에 인턴이나 연수 파견
 - ② 유러피안대학에서 한학기 수학후 유럽경영 MBA취득기회
 - ③ 재학중 경희대 해외자매대학 및 기관에 교환학생 파견기회
 - ④ 외국학생과 공동학업 및 공동생활로 국제감각의 배양
 - ⑤ 영어 강의를 통한 외국어 구사 능력배양
 - ⑥ 국내외 세미나,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실무경험 취득
- 3. 충실한 정보화 교육
 - ① 온라인 원격교육의 실시
 - ② 정보통신관련 기술과 지식의 습득
 - ③ 컴퓨터 및 인터넷특강
 - ④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자재 확보
 - ⑤ 개인 E-Mail ID의 제공
 - ⑥ 국제관계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